

저자들은 측두하와 접근법으로 치료를 시행한 후 2년 이상의 추적진료를 시행한 두개저종양 10례(양성종양 7례, 악성종양 3례)를 대상으로 치료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측두개 기저부 종양에서의 본술식의 유용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 1) 시술한 환자는 측두하와 접근법 A형이 5례, B형이 3례 그리고 C형이 2례이었다.
- 2) 10례중 7례가 서로다른 질병으로서 매우 다양한 병리조직학적인 소견을 보였다.
- 3) 7례는 완전 치유가 되었으며, 3례는 병소가 재 발현된 상태로 생존하여 있다.
- 4) 본시술법은 안면신경의 기능적 보존과 손상된 안면신경의 재건에 매우 유용하였다.
- 5) 청각소실, 악안면감각소실, 부정교합은 이시술의 단점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었다.

22

안면신경 신경초종(Schwannoma)의 외과적 치료에 대한 고찰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일반외과  
전병민\* · 김상호

1988년 이후 5년간 본병원 일반외과에서 4예의 안면신경간 신경초종(facial nerve trunk schwannoma)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였는 바, 성별 및 연령은 각각 남자 30세, 여자 28세, 51세, 70세였으며 모두 3년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크기는 2.5~3.0cm였다. 수술은 전례에서 enucleation(shelling-out)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직후 1예에서만 안면마비가 없었고 나머지 3예는 grade 2~3의 안면마비가 있었으나 2개월 후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여 6~8개월에 grade 1으로 회복되었다. 이하선 부위 신경초종은 수술전 MRI, CT scan등에서 low density, deep lobe tumor일 경우 안면신경초종을 의심하며 특히 mobility가 없이 촉진상 비교적 연성(soft)의 종괴로 FNA에서 spindle cell이 증명되면 거의 확진할 수 있으며, 그 치료는 enucleation을

시행하므로 심한 안면마비는 초래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1년후 facial reanimation으로 교정할 수 있는 질환이다.

23

CT and MRI in Kimura's Disease

Hong Ju Son, M.D., Dong Ik Kim, M.D.,  
Jung Ho Suh, M.D., Cheong Soo Park, M.D.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 CT and MR patterns of Kimura's disease

**Materials & Methods :** Ten patients with Kimura's disease(six male and four female), aged from 16 to 58 years(mean age 37.6 years) were examined and CT scan were performed in eight, CT and MRI were performed in two. Histopathologic confirmation was take in all patients.

**Results :** All were involved multiple foci in head and neck as follows : grandular structure(parotid, submandibular, lacrimal)(4), periglandular soft tissue(8), internal jugular nodes(8). The nodal lesions were homogeneously enhanced and relatively well-defined, but the extranodal lesions were ill-defined with some infiltration to surrounding tissue on CT. The lesions were isointense on T1, hyperintense on T2 on MRI, but enhanced with some variable degree in gadolinium contrast study.

**Conclusion :** CT and MRI were useful in localizing lesions and differential diagnosis in Kimura's disease. Homogenous well enhancing massess and nodal lesions on predilection sites in head and neck were a characteristic radiologic findings in diagnosing Kimura's disease. Some variable degree of contrast enhancement was related to histopathologic nature of Kimura's disease.